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28>]혜손지복구 전도민 운동으로 확산

제1부/제주식물 세계화 100년(27)-한라산 혜손지복구(하)

입력 : 2004. 10.04. 00:00:00



▲한라산 장구목 아래쪽에 위치한 민오름(민대가리 오름) 일대의 혜손지 복구현장. 저지대 식물 출현, 아고산대 고유의 자연생태계 교란 등 끊임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녹화마대 공법이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한라산 혜손지 복구는 최대한 원래 생태계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녹화마대 피복공사에 의한 복구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이미 심하게 훼손된 토양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 혜손지 복구는 1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숭한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하며 진행돼 왔다. 심지어 용역진마다 각각 다른 복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한라산에 적합한 복구방법 보다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를 시험하는 시험지 조성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첫 복구는 91년 어리목 등산로에서 실시됐다. 이 때 시도된 공법이 서양에서 도입한 토양 안정재료인 양카매트 시설과 새 심기다. 이 공법은 어리목에 이어 이듬해인 92년에는 정상 서북벽 길목인 장구목 일대로 확대됐다. 양카매트 공법에 의해 복구된 면적은 당시 어리목과 장구목 일대에 각각 7,100㎡, 6,600㎡에 달했다.

복구는 용역과업 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실시됐지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이 공법은 10년이 지나도록 식생 피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장구목의 경우, 집중강우에 의한 토양유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훼손면적이 오히려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1993년부터 남북정상을 시작으로 녹화마대 피복공사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 공사 역시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다. 한라산 아고산대는 토양 표토층이 얇고 화산회토나 스킨리아(송이)로 되어 있어 식물이 자라는데 불리한 지질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지대의 흙을 이용한 복구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대부분의 흙은 해발 300m 이하의 저지대에서 채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지대 식물의 출현, 미생물의 이동 등 아고산대 고유의 자연생태계 교란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끊임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녹화마대 공법은 심토를 사용하고 저지대 식물들이 차츰 고지대에 적응하지 못해 퇴화하는 등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라산연구소 고정균 연구팀장도 “한라산 아고산대의 훼손지 복구는 훼손지의 진전을 저지하고 원식생을 회복하여 훼손지 경관을 주변 경관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복구를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라산훼손지 복구는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돼왔다. 일찍이 이만큼 도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캠페인도 없을 정도였다. ‘흙 한 봉지 나르기운동’은 1997년 3월 23일부터 시작돼 2001년말까지 6백24톤의 흙을 운반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이 운동이 이같은 거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탐방객들에게 한라산 되살리기에 대한 의식과 함께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정신운동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한라수목시험소, 난대산림연구소 등 유관 기관은 물론 제주자생식물동호회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 생태계 복원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노력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생태계 복원은 방대한 면적인데다 환경에 워낙 민감한 고산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남북정상을 제외한 대부분 복구지역에서는 식생이 아고산대의 고유식생과는 아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라산 훼손지 복구와 관련한 쟁점은 어느 부분까지 손을 댈 것인가다. 자연적인 훼손지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의 한복판에 있다. 이 문제가 한라산 자연생태계는 물론 경관자원 보전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는 인위적인 훼손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등산로 주변과 같이 탐방객의 답압에 의한 1차적인 훼손이 초래되었거나 이후

자연환경요인 등에 의해 훼손이 확산되는 지역이 복구대상임을 의미한다.

훼손지 복구는 등산로 주변인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녹화마대 피복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지난 94년부터 본격 실시된 훼손지 복구실적이 115,000㎡로 전체 훼손지 가운데 절반을 약간 웃도는 약 51%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복구 대상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구율과 지금까지의 복구 진척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고산 황폐지(나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지 보다는 고산지역의 여러가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훼손지로 복구대상이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붉은오름 등 윗세오름, 민오름 일대 등의 나지에 대한 복구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한라산 훼손지 가운데 과연 어느 지역까지 복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한라산 훼손지가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훼손면적을 산정한 93년, 2000년 두 번의 용역결과가 실제 복구가 필요한 면적에 비해 과대표장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라산국립공원측은 지난해말부터 국립공원내 훼손지와 복구지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착수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93년 이후 10년만에 처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에서는 훼손지를 비롯해 복구지와 과거 훼손된 지역 중 자연적으로 복원된 곳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강우와 바람, 동결융해 등 고산대 기후에 의한 자연 훼손지 가운데 인위적인 복구대상에서 제외시킬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함께 진행중이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